

## 초파일 (初八日)의 세시풍속

강 욱  
자유 기고기

음력 4월의 명절로 초파일이 있다. 불교신자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날이지만,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랜 역사를 관류하면서 초파일은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이 되었다. 농군들은 초파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었다. 불교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을 사서 걸기도 한다.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특별히 초파일(初八日)이라 부르며 부처님 오신 날, 불탄일(佛誕日), 욱불일(浴佛日), 석탄일(釋誕日)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날 밤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에서 등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燃燈) 행렬이 벌어진다. 각 가정에서도 등을 달아 이 날을 기념한다. 초파일 밤은 온 시내가 연등놀이로 어두움을 모르고 밤을 밝히는 것이다.

원래 연등놀이는 정월 보름에 하던 행사였는데 고려 고종 때부터 초파일에도 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따라서 연등회를 거국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시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어린이들까지 연등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등 비용을 만들기 위하여 한 달 전부터 종이를 오려서 대나무에 기를 달고 성중(城中)을 다니면서 쌀과 베를 구하는 호기풍속(呼旗風俗)이 생겨났다. 공민왕도 두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쌀을 하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강해지고 불교가 약해져 이 행사는 초파일에만 민간에서 행해지는 풍속이 되었다.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에 등을 단다는 것은 무명(無明)을 밝힌다는 불교적 의미가 일차적으로 존재한다. 연등행사에서 등(燈)을 만들 때는 민속적 취향에 따라 수박등, 거북등, 오리등, 일월등, 학등, 배등, 연화등, 잉어등, 향아리등, 수복등 등 다양하게 만들었다. 강에는 연등을 실은 배를 띄워 온 누리를 휘황찬란한 연등 일색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축제 분위기의 연등 행사는 자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이를 관등(觀燈)이라고 한다. 연등과 관등이 있는 곳에는 각종 민속놀이가 성행하였다.

민간에서는 초파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등을 달아 맬 소나무를 세우고, 그 등대 꼭대기에는 켜의 꼬리털을 꽂거나 색색으로 물들인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이 등대에다 줄을 매어 식

구 수대로, 또는 아이들의 수대로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때 등불이 환하게 밝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등대의 장식은 가난한 집에서는 늙은 소나무 가지를 붙들어 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부잣집에서는 온갖 사치를 다 부려 멋을 냈다.



초파일에 행하는 탑돌이는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한다. 오대산 월정사의 탑돌이는 유명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초파일이면 수많은 신도들이 탑이 서 있는 절간의 마당을 가득 채웠다. 절의 스님은 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아가며 불경을 외웠고 신도들은 스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탑을 돌아가며 저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간절히 소원을 빈다. 부인네들은 아들 낳기를 빌고, 처녀 총각들은 시집 장가가기를 빌며, 부모님이 아픈 집 자녀들은 병이 완쾌되기를 빌었다. 여럿이 탑을 도는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었다. 탑돌이는 처음에는 범종, 북, 운판, 목어만 쓰다가 삼현육각을 더하고 백팔정진가도 부르게 되었다.

초파일이라 하면 욕불행사(浴佛行事)를 빼놓을 수 없다. 욕불행사란 석가모니가 태어나자 구룡(九龍)이 와서 목욕시켰다는 전설에 따라, 이 날이 되면 탄생불(誕生佛)을 욕불기(浴佛器)안에 모셔놓고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목욕시키는 의례를 행한다. 이 욕불행사는 초파일에 행



하는 연등행사와 함께 2대 행사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석가모니의 탄생일인 초파일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온 국민이 기쁨과 축하를 나누었던 민중의 축제가 된 것이다. 이 화려한 경축행사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되었고 유교를 중요시하게 되어 국가가 이를 막았어도 그 풍습이 끊일 줄 몰랐다. 특히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성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성대한 연등행사를 가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신자는 많지만 초파일의 행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절에서만 등을 달고 채를 올리며, 밤에는 불교 신자들이 손에 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 행렬이 있을 뿐이다.

4월 초파일의 음식으로는 산에 저절로 자라는 관목인 석남나무 잎을 넣어서 만든 증편과 찢 감정콩, 데친 미나리 나물이 알려져 있다. 이밖에 ‘파강회’와 ‘미나리강회’를 4월 달에 즐겨 먹었다. 파강회는 파를 삶아 날고기를 속에 넣고 파 잎으로 말아서 초간장을 찍어 먹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흔히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데쳐서 파강회와 마찬가지로 날고기를 미나리 잎과 줄기로 삼아 초간장이나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미나리와 파가 흔한 때이므로 그러한 것을 특식으로 하였다.

또 생선을 잘게 썰어 익혀 오이 나물, 국화잎, 파의 싹, 석이버섯, 익힌 전복, 계란 등과 섞어 기름과 식초를 쳐서 시원하게 먹는 것을 ‘어채(魚菜)’라고 한다. 또한 초여름에 장미가 한창 필 때는 빛이 노란 장미를 따다 찹쌀 가루에 넣어 반죽하여 동그란 떡을 만들어 기름에 튀겨 먹는다. 이것을 꽃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전(花煎)이라고 부르고,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유전(油煎)이라고도 부른다. ☺

